

~~5/11~~ 5/12 일요일

날씨: 바람 많이 불

9주 건목과 함께 건목의 신발을 사러 노천에 다녀왔다.

건목과 함께 다양한 곳을 둘러보았지만 슈반란트 매장에서
건목의 신발을 샀다.

신발을 사고 건목가 음료수를 사주었다. 맛있었다. 시원했다.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감로를 사러 노천물고를 둘러보았지만

감로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에 있는 다이소에서

감로를 구매하고 지하철역을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밥을 맛있게 먹은 나는 기분이 좋은 잠을 청하였다.

개운하게 밤중에 일어났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였다.